믿음의 양심이 뭐며, 내게 있기는 하나?

(고린도전서 8:7~13)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양심이 뭐며, 내게 있기는 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의 양심이 뭐며, 내게 있기는 하나?”
본문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양심, 영적인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게는 이 믿음의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양심이 약하거나 강한 자가 있으며 혹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에 대해 말해봅니다. 양심이

란 자신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속 기준입니다. 이 양심은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신분에 따라서 생겨납니다. 시민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양심이 있으며 택배기사로서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위치에는 양심이 수반됩니다. 한편 믿음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양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믿음의 지식만 있고 믿음의 양심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양심이 약한 사람이 그나마 조금 있던 양심마저 상처를 입거나 버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다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게 됨으로써 믿음의 양심은 해침을 당하고 소멸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소멸시키는 일은 결코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 믿음의 양심이 없다면 그 지식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때에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양심 차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양심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음에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의 지식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과 연결해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기운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식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지

식만을 갖고 믿음의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지식이 그를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내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비극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양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전에는 참 양심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양심이 꺼져 있었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꺼져있던 양심이 뒤늦게 켜지니까 이전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꺼지거나 켜질 양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뒤늦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양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양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자 더욱 큰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쨌든지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의 생활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으로 채워지려는 욕구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있거나 붙어있는 상태가 죄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식 작용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있다고 느끼거나 욕구 작용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좋다고 욕구하게 되면 그것이 빗나감의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이 이 세상을 빠져나오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빠져나옴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 포

인트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우상숭배는 요즘 종교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편만한 일상적 생활방식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은 거의 모든 경우에 신전에서 이루어졌기에 신전 모임에서 빠진다면 사회생활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은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와서 복음적인 생활방식으로 바뀐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의 우상숭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면서 품고 있는 핵심문제는 “빠져나옴”입니다. 이 빠져나옴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꼭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아니더라도 복음은 세상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정한 것들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좋은 것이 많다고 하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성분이 50%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안정된 환경을 구축해서 기뻐하려 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의 성분을 조사하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5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50%는 세상에서 빠져나간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거나 얻거나 누리게 될 확률은 0%입니다. 복음의 성분 자체가 50%는 이 세상을 빠져나감이고 나머지 50%는 이 세상을 빠져나간 마음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시다가, 너무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곧장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세

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시거나 누리시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 곁을 내주시는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의도적으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라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내세우다”라는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된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은 곧 이 세상을 빠져나감입니다. 복음의 50% 성분인 세상에서 빠져나감을 통하여 나머지 50%인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감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가 이 세상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형제가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오기는커녕 역주행하여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 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믿음의 양심이 없다면 믿음의 지식을 따라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지식이 약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양심이 없는 믿음의 지식을 따른 행동을 보고 세상에서 빠져나감을 포기하고 세상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50% 성분을 이루는 것이 세상을 빠져나감이고 이것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죽음의 사건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믿음의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이란 곧 영적인 양심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양심이란 자신의 잘잘못을 구분하는 마음속 기준입니다. 밖에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마음속 기준이며, 밖에서 누가 칭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의 잘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잘했다고 인정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

는 괜찮습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내 마음속 양심이 잘못을 지적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이러한 양심은 적용됩니다. 믿음의 양심에서 진리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쇄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으신 후에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로부터 믿음의 양심에 대해서는 세상을 빠져나감이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보면 이전에 살펴보았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7장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얽매임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사람을 우상숭배로 역주행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빠져나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양심에 찔림이 느껴진다면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주저앉으려는 경향을 깨달았기에 찔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통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에 연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복음의 50% 성분이 양심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세상을 빠져나가는 마음의 운동성을 멈추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가거나 세상에 주저앉아버린다면 믿음의 양심은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이 세상에 주저앉으려 할까? 내가 왜 자꾸 이 세상 것을 생각할까? 나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주체성을 물리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려 할까?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다.”라는 찔림을 느낀다면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믿음의 양심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과 기준과 확신이 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를 생활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손을 털어야만 하는데 아직 습관이 남아서 예전처럼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있다고 의식하고 이 세상 것을 좋다고 믿으며 욕구하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하늘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여 역주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역주행을 막는 기능이 믿음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여 오락가락하고 겨우 추스르고 있는데 오직 믿음의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멋대로 이 세상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향하고 안주하는 걸 보니 그래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역주행해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믿음의 양심이 약한 사람은 세상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기를 바라셨듯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세상을 빠져나가기를 바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양심이 약한 사람을 역주행하게 하고 그 약한 양심마저도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은 있으나 믿음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독일 유학을 갈 때 제가 먼저 가고 3개월 뒤에 집사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자를 발급받는데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팅겐이라는 도시에서 발급해줍니다. 괴팅겐 시청에서는 발급한 비자를 독일 영사관에 보내고, 독일 영사관에서는 그 비자를 보고 집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줍니다. 그런데 독일 영사관 직원이 한국 사람인데도 도중에서 비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울고불고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독일의 괴팅겐은 남편이 있을 뿐이지 낯설고 물선 이역만리 떨어진 곳입니다. 집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남편 하나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시며 조물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연합해야 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 하늘 아버지 옆에 계십니다. 저의 집사람이 남편이 있는 독일에 가지 못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심을 압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좋음은 이 세상의 좋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게 아버지로 안겨주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해 울고불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해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로 가는 그리스도 연쇄과정이 부여하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심과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령 왕궁에서 사셨더라도 왕궁의 좋음을 느끼실 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음을 알고 계셨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좋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좋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배설물과 같습니다. 왕궁의 좋음이 하나님의 좋음 앞에서는 똥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왕궁의 좋음을 가지셨어도 그 좋음에 취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궁 대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왕궁을 택하셨다면 우리에게 왕궁이라는 세상의 좋음을 가져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말구유를 택하셨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곁을 주지 않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세상을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상을 곁에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마음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빠져나가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을 믿고 천국의 좋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빠져나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양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조건 하늘로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잘난 남편밖에 알지 못하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이역만리 땅으로 가지 못해 울고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계시를 통해 그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도 취하거나 누리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좋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양심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이 기독교 지역들을 먹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없는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영적인 움직임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영적인 움직입니다. 믿음의 양심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 세상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려 함에 대한 찔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찔림입니다. 우상숭배의 습관이 없어지지 않고 우상숭배의 생활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를 끊임없이 죄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안타까워하게 하고 한탄하게 합니다. 나 자신의 죄적 습관에 원한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하늘로 가지 못함에 대해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시며 유

일한 조물주이시며 유일한 참 신이심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땅에 남아 편하게 살고 있다면 믿음의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심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이 기준입니다. 영적인 양심을 가진 자들은 오직 세상을 빠져나가 천국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복음의 성분을 따라 살게 됩니다. 형제 누구를 만나든 그가 오직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일조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심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도 절대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최고로 좋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편히 땅에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양심 없음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성분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 세상을 빠져나감이 50%이고 천국에 진입함이 50%임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다면 괴로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양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심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